

한국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 및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지 수 고 유 진 한 윤 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고,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와 그들의 부모 데이터를 병합하여 총 4314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다층선행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한국어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한국어나 계승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집단, 청소년과 부모 중 한쪽만 유창하게 하는 집단, 둘 다 유창하지 않은 집단 순으로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다문화 가정, 다문화청소년, 언어 유창성, 부모자녀 관계, 계승어

[†] 교신저자 :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yoonsunhan@skku.edu

서론

오랜 시간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 진입 단계를 벗어나 전환 단계로 향하고 있다(김영란, 2015). 다문화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2014년 7월 기준 약 79만 명 정도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경에는 1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안전행정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2079호, 2014)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규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법에 의해 정의되는 다문화 가족이 아닌,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혹은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족이 있다(김경우, 2012). Kim(2009)은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일자리를 찾으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증가와 농촌에 사는 한국남자들이 외국에서 신붓감을 찾는 비율의 증가로 보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중 약 14%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며 살기 위해왔다는 것이다(Choi, 2010).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안전행정부(2014)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총 204,20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수는 82,894명인데 비해,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수는 121,310명이다. 즉,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보다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수가 훨씬 많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기도 하는데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역량을 보이기도 하며, 피부색이나 외모로 다문화 가정 자녀임이 눈에 띌 경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일반 아동이 받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하기도 한다(김민정, 2008; 최운선, 2012).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을 가정 내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 자녀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문주희, 백지숙,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Lee & Kim, 2000). 따라서 앞서 언급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언어는 가족 내 관계의 질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요소이다. Fillmore(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부모자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Oh와 Fuligni(2010)의 연구와 Portes와 Rumbaut(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 세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세대 간 격차를 덜 경험하고 부모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앞선 연구들을 고려하면 계승어를 이민부모만큼 유창하게 구사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관계를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한 가정 내 두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분하여 한 가정이 동일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우리나라 상황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다문화 가정 내 부모자녀 간의 외국인 부모나라의 언어 유창성과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국가의 언어 유창성에 대해 살핀 연구가 절실하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사이트인 '다누리'는 각각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이주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적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hung과 Yoo(2013)의 연구에서 다문화 센터 프로그램이 한국의 가치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황상심과 정옥란(2008)의 연구에서는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 지원이 한국어 위주인 반면 한국인 부모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개선

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들은 시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효과성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문화 정책에서의 효과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되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의 한국어나 계승어 유창성의 차이가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와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에는 흔히 또래나 이성 친구 같은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Collins, Maydew, & Weiss, 1997; Collins & Laursen, 2004). Ranson과 Urichuk(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가진 아동이 불안정한 관계를 가진 아동보다 높은 사회성, 도덕성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유지한다.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 모든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박명숙, 송사리, 2010; Eichelsheim et al., 2010; Kang & Lazarevic, 201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며, 특히 한국의 부모자녀가 서로를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4; 전경숙, 정태연, 2009).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과 행동적 기능에 연관이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Kang & Lazarevic, 2013).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인종과 관계없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과 약물 사용과 같은 일탈행동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 만약 청소년 자녀가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약물사용과 비행행동을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ichelsheim et al., 2010).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chlabach (2013)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내의 가족관계의 질은 자녀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웰빙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낮출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양육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수록 아동의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위 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적 비행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박명숙, 송사리, 2010;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시 말해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도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수월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소통의 원활함을 넘어 자녀의 발달 측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 간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기 시기에도 어머니가 언어적인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언어표현 능력은 달라지며, 다문화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자녀의 언어능력이 상이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김연수, 곽금주, 2010; 황상심, 정옥란, 2008). 이선미와 천우영 (2013)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적 의사소통을 하지만 다문화 가정 부모와 아동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한국 다문화 가정에는 아버지의 언어와 어머니의 언어가 다를 경우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seng와 Fuligni(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의 일치 여부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Oh와 Fuligni(2007)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일치보다는 언어 유창성이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는 크게 부모와 자녀 모두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적 일치, 부모자녀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유창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불완전 일치, 마지막으로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부적 일치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정적 일치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이민 국가에서 계승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경우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주류 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경우 부모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어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riagada, 2005). 또한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는 청소년일수록 세대 간 격차를 덜 경험하고 부모관계의 질이 높다는 연구들을 고려하면 계승어를 이민 부모만큼 유창하게 구사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Oh & Fuligni, 2010; Portes & Rumbaut, 2001). 한국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청소년의 계승어에 대한 관심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허청아, 2014).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정적으로 일치하는 또 다른 경우는 부모가 주류사회의 언어를 자녀만큼 유창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 부모의 주류사회의 언어 유창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주류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여 그들의 자녀가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Gorodzeisky, Sarid, Mirsky, & Slonim-Nevo, 2014).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는 경우 외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보다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경우와 반대로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주류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여 이민 국가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통역자 역할을 하는 ‘언어 중개(language brokering)’를 예로 들 수 있다(Martinez, McClure, & Eddy, 2008; Weisskirch, 2007). 청소년은 ‘언어 중개’를 통해 부모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Buriel, Love, & De Ment, 2006; Chao, 2006). 나아가 언어중개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자녀들이 언어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며 마주한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Love & Buriel, 2007). 하지만 부모를 대신해 언어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원치 않게 복잡한 가정사를 알게 되거나, 학교 생활평가와 같은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때, 부모자녀 관계는 악화되기도 한다(Dorner, Orellana, & Jiménez, 2008). 특히 청소년 자녀가 언어 중개자 역할을 오래 감당하게 될수록 부모로서 기대되는 역할까지도 자녀가 대신하게 되는 ‘역할의 뒤바뀜(role reversal)’을 경험하게 된다(Hua & Costigan, 2012).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구조가 뒤바뀌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야기된 갈등이 결국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한국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 출신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김이선, 정해숙, 이은아, 채수홍, 2010). 이러한 언어 유창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부모자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경우는 자녀가 계승어 사용을 거부하거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국가에서 청소년이 계승어로 말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와 지속적인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Hinton, 2001). 자녀가 부모 세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부모자녀 간 대화의 깊이나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언어 유창성의 비일치가 부모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경우의 수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기존의 다문화 가정의 언어 유창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나누어 계승어 사용 능력과 주류사회언어 사용 능력에 대해 주로 연구가 되어왔다. 하지만, 국제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양 부모가 각각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의 공존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아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기존에 연구되어오지 않은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계의 질은 소통의 원활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 언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 한 가정 내에서 부모끼리도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어 유창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로 구성되어 두 가지 언어를 공유하는 가정이라 명명하였고 그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 자녀로 정의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와 계승어 유창성을 기준으로 각각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집단을 나누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관계 만족도는 부모자녀 간 계승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2) 부모관계 만족도는 부모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표 1.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구분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상	하
부모의 언어 유창성	상	정적 일치	불완전 일치1(부모>청소년)
	하	불완전 일치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3) 청소년과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4)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데이터를 만 9세~24세 청소년 자녀 데이터의 가구 고유키를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1.80명으로 총 3219가구이며 최종분석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2875가구의 4314명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과 부모의 언어 유창성 차이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결혼이민자·귀화자,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그리고 만 9~24세 자녀를 포함한 전국의 다문화 가족 15,341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조사는 2012년 7월 10일에서 2012년 7월 3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일반 특성, 경제 상태, 가족 행태 및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며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귀화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만 9세~24세 청소년 데이터에 개인 변인, 한국어/계승어 유창성 관련 변인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은 청소년 자녀가 직접 설문지에 기재하였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데이터의 한국어 유창성 관련 변인은 외국인 부모가 직접 기재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데이터의 외국계 배우자 나라의 언어 유창성은 한국인 부모가 직접 기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모관계 만족도

부모관계 만족도는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총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으로 나타나게 원칙도를 역코딩하였다. 2문항의 Cronbach's $\alpha=.76$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2문항을 합하여 평균 낸 점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부모관계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 집단

한국어 유창성은 청소년 자녀와 외국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매우 못한다)~ 5점(매우 잘한다)으로 나타나게 원척도를 역코딩하였고 4문항을 모두 합하여 평균점수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에 대한 전체 4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청소년의 한국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 =.95,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 =.94).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는 그들의 한국어 유창성을 측정한 4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 집단은 총 4개로 청소년과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단은 정적 일치 집단, 청소년과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은 부적 일치 집단, 청소년과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은 부적 일치 집단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그 다음,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은 평균이상이지만 청소년의 한국어 유창성은 평균이하인 집단은 불완전 일치 집단1로,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이하이고 청소년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이상인 집단은 불완전 일치 집단2로 더미코딩 하였다.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집단

계승어 유창성은 외국계 부모의 언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청소년 자녀와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매우 못한다) ~ 5점(매우 잘한다)으로 나타나게 원척도를 역코딩하였고 4문항을 모두 합하여 평균점수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 는 .97,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나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과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그들의 계승어 유창성을 측정한 4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삼아 총 4집단으로 나누었다. 청소년과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단은 정적 일치 집단, 청소년과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은 부적 일치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코딩하였다. 그 다음,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은 평균이상이지만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은 평균이하인 집단과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이하이고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이상인 집단은 각각 불완전 일치 집단1과 불완전 일치 집단2로 더미 코딩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개인 변인과 언어 유창성 평균을 중점으로 나눈 집단들에 대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부모관계 만족도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집단 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성 차이가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관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1수준)-가정(2수준) 유형의 다층 선형회귀 모형(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random intercepts)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는 각 가정에 속하게 되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같은 가정 내 자녀들의 행동은 상호 종속적인 반면에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는 독립적이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를 갖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다층 자료(multilevel data)라고 부르며 이러한 다층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통상적인 선형모형으로는 분석이나 해석이 어려우므로 다층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Raudenbush & Bryk, 2002). 오직 하나의 오차항(error term)을 가정하는 일반 회귀분석과 달리 다층 선형회귀 모형은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청소년 자녀(개인 수준)의 특성과 부모(가정 수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속변인을 예측하게 해준다. 즉 다층모형에서는 측정 수준별로 여러 개의 오차항(error terms)을 가져 개인 내 변량(σ_j^2)과 가정 간 변량(μ_j)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y_j = b_0 + b_1x_{1ij} + b_2x_{2ij} + \dots + b_mx_{mij} + (\mu_j + e_{ij})$$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부모관계 만족도, 독립변인은 부모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이다.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 자녀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모관계 만족도는 평균 4.24점($SD=0.82$)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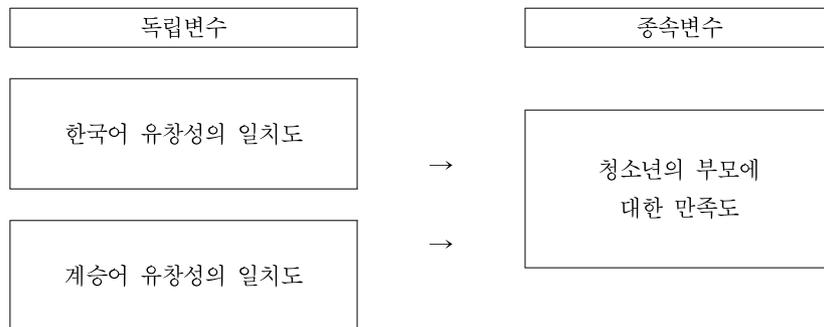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간 유창성 일치도를 구성하는 집단의 분포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유창성의 경우, 정적 일치 집단(38.6%)이 전체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 (34.6%), 부적 일치 집단(16.1%),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10.6%) 순으로 청소년이 각각 집단에 속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계승어 유창성의 경우, 부적 일치집단(41.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

로 정적 일치 집단(22.3%),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19.7%),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 2(16.8%)의 순으로 한국어 유창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수준에 따른 부모관계 만족도의 평균 분포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는 정적 일치 집단($M=4.39$, $SD=.75$),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 1($M=4.19$, $SD=.78$),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M=4.18$, $SD=.85$) 그리고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evel 1 (N=4314)				
부모관계 만족도	4.24	0.82	1	5
남학생	52.6%	-	-	-
나이	13.40	3.84	9	24
한국어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	38.6%	-	-	-
불완전 일치 집단1 (부모>청소년)	10.6%	-	-	-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청소년)	34.6%	-	-	-
부적 일치 집단	16.1%	-	-	-
계승어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	22.3%	-	-	-
불완전 일치 집단1 (부모>청소년)	10.6%	-	-	-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청소년)	16.8%	-	-	-
부적 일치 집단	41.2%	-	-	-
Level 2				
외국인 부모성별(여자)	86.4%	-	-	-
한국인 부모학력	3.12	1.21	0	6
외국인 부모학력	3.47	1.14	0	6

표 3.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부모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Scheffe사후검증
한국어 유창성	72.82	3	24.27	37.26	.001	a>b=c>d
계승어 유창성	51.89	3	17.30	26.88	.001	a>b=c>d
오차	2771.87	4307	.64			
합계	2897.39	4313				

주. a: 정적일치집단, b: 불일치집단1(부모>청소년자녀), c: 불일치집단2(부모<청소년자녀), d: 부적일치집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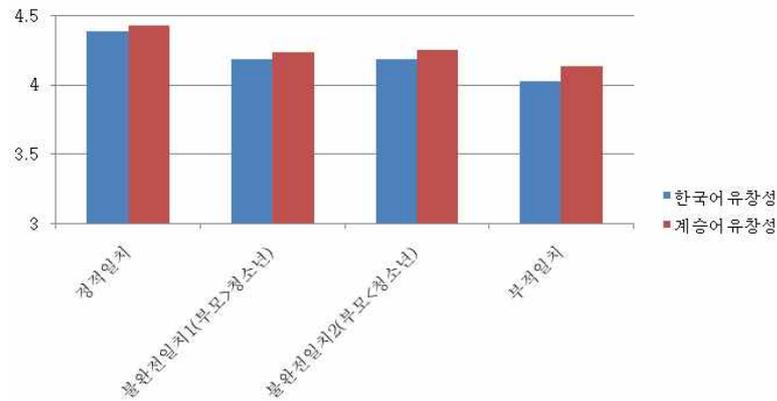


그림 2.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부모 관계 만족도 평균 비교

부적 일치 집단($M=4.03$, $SD=.87$) 순으로 부모 관계 만족도 점수를 가졌다.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정적 일치 집단($M=4.42$, $SD=.73$)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가졌고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M=4.25$, $SD=.77$),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M=4.23$, $SD=.81$), 부적 일치 집단($M=4.13$, $SD=.87$)순이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에서 정적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 점수를 가졌으며 불완전 일치 집단1과 2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부적 일치 집단이 가장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 점수를 가졌다.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언어유창성 일치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집단 간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한국어 유창성부터 살펴보면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해 정적 일치집단, 불완전 일치 집단1(부모>청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_{3,4307}=37.26$, $p<.001$).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후검증인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관계 만족도는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 중에서 정적 일치 집단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불완전 일치 집단2와 불완전 일치 집단1이 부적 일치 집단보다 높았으며 부적 일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둘째, 계승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 불완전 일치 집단1(부모>청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집단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_{3,4307}=26.88, p<.001$).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중에서 정적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냈다. 불완전 일치 집단1과 불완전 일치 집단2은 부적 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와 계승어 유

표 4. 부모관계 만족도 예측모델($N=4314$)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t
절편	-4.69	.11	-43.37***
한국어 유창성 ¹⁾			
부적 일치 집단	-0.38	.04	-09.86***
불완전 일치 집단1(외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25	.04	-06.17***
불완전 일치 집단2(외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20	.03	-06.48***
계승어 유창성 ²⁾			
부적 일치 집단	-0.22	.04	-05.56***
불완전 일치 집단1(한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17	.04	-04.24***
불완전 일치 집단2(한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10	.04	-02.32***
인구사회학적변인			
자녀성별	-0.01	.02	-00.23***
자녀나이	-0.03	.00	-09.45***
중도입국 여부	-0.16	.04	-04.01***
외국인 부모성별	-0.07	.04	-01.67***
한국인 부모학력	-0.02	.01	-01.71***
외국인 부모학력	-0.02	.01	-01.75***
무선흐과	분산	표준편차	
가정 수준 변량	-0.30	.02	-18.44***
개인 수준 변량	-0.33	.01	-27.71***

1) 한국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음

2) 계승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음

주. * $p<.05$. ** $p<.01$, *** $p<.001$

창성의 일치도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층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한국어와 계승어의 언어 유창성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는 다층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속하는 각 집단이 부모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한 다층 선형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델의 무선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선효과의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8.44, p<.001$), 이는 각 가정마다 가지는 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층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 간 변량의 총변량에 대한 비율은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라 불리는데 이는 전체 변량 중에서 가정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이 분석모델에서는 부모관계 만족도 변량의 약 48%가 가정 차이에 의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분석모델을 살펴보면,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의 정적 일치 집단을 기준으로 모든 집단이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유창성의 경우,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유창하지 않은 부적 일치 집단($b=-0.38, p<.001$), 외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b=-0.25, p<.001$), 자녀가 외국인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b=-0.20, p<.001$)은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정적 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계승어 유창성의 경우에 한국어 유창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계승어가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b=-0.17, p<.001$), 자녀가 부모보다 계승어가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b=-0.10, p<.05$) 그리고 한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계승어가 유창하지 못한 부적 일치 집단($b=-0.22, p<.001$)이 정적 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논 의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보다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 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로 이루어져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자녀 관계를 언어 유창성에 기반을 두어 살펴보는 연구도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

과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를 네 집단으로 나눠 검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유창성의 불완전 일치 집단1, 2와 부적 일치 집단, 계승어 유창성의 불완전 일치 집단1, 2와 부적 일치 집단은 각각 한국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과 계승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보다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즉 한국어 및 계승어 모두에 대해 부모자녀가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정적 일치 집단일수록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주류사회 언어를 유창하게 할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Gorodzeisky et al., 2014; Oh & Fuligni, 2010; Portes & Rumbaut, 2001). 특히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뿐만 아니라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격려될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허청아,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소수 언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외

국 출신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류사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부모나라의 언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Fillmore(1991)의 연구와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절차에 이루어진다는 Okita(200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의 진입 궤도에 오른 현 한국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기존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적은 교육 횟수, 교사의 전문성 우려, 교재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이선 등, 2010). 또한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는 정적 일치 집단일수록 부모관계에 만족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 프로그램의 대상이 기존 외국 출신 부모 위주에서 한국인 부모와 자녀로까지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대안은 다문화프로그램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이선 등, 2010). 김영란(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외국 출신 여성들은 자신들의 출신국가 언어와 문

화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또한 자녀에게 출신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물려주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외국 출신 부모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부모나라의 언어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한 김선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교육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역할이 일반 가정 아버지의 역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들을 포함한 가정과 학교생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외국 출신 부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외국 출신 부인에게 한국 문화 익히기만 강요할 때보다 부인의 출신 국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할 때에 부인의 한국적응이 더욱 수월하다는 성현란(2011)의 연구를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 내의 상호 언어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다문화 가정 내 언어에 대한 연구가 부모 및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용 언어뿐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네 개의 집단(정적 일치, 불완전 일치1, 불완전 일치2, 부적 일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게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둘 다 계승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정적 일치,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

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와 청소년 모두 유창하지 않은 부적 일치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은 다문화 가정 내 외국 출신 부모와 자녀가 겪는 부모자녀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단순히 한국어 사용가능 여부가 아닌 유창성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성의 상이함을 인정하며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교육이 재고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나누어 살펴본 것은 다문화 가정 내 의사소통 및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책임이나 노력이 외국출신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청소년 자녀의 외국출신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해외 다문화 연구는 대부분 가족이민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부 간 언어차이는 크지 않으나 세대간의 언어차이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계승어와 주류사회언어 유창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보면, 계승어 유창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보다 뛰어나며 주류사회언어 유창성에 있어서는 자녀세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주류사회언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한국어 불일치2) 또는 부모가 자녀보다 계승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계승어 불일치1)만 발생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이 두 집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사용하는 언어 유창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일치

집단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상으로 하였던 집단들보다 더 세분화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녀가 한국인 부모보다 계승어를 잘하는 집단(계승어 불일치2)과 외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한국어 불일치1)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는 기존의 집단에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을 본 연구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 유창성이 높은 준거집단에 비해 두 개의 불완전 일치 집단이 부모관계 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보인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 유창성이 낮은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다문화 가정 내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일치와 비일치로 나누어 살펴본 것에 대하여 비일치 집단에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유창성 일치도 차이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언어가 존재함에 따라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에 따른 그룹이 다양할 수 있다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힘을 더한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언어 유창성이 높은 불완전 일치 집단2와 부모가 청소년보다 높은 언어 유창성을 보인 불완전 일치 집단1 모두 준거집단보다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한 결과는 일치되지 않는 언어 유창성으로 인해 준거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언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연구 맥락과 일치한다(Dorner et al., 2008). 부모가 서투른 언어를 구사할 때, 보다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까지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종종 부담감을 갖게 한다. 만약 부모의 언어 의존도가 지속될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로부터 부모로서의 권위를 존중받기 어려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부모 세대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Hinton (2001)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외국인 부모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대화의 주제나 지속 시간에 한계가 생기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배경이나 관습을 이해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가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가정 내 자녀에게 계승어 사용에 대한 장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의 폭이 넓지 않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낮은 언어 유창성을 보이는 부적 일치 집단의 경우, 가장 위험한 집단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어나 계승어 사용에 있어서 서투르다면 이것은 분명 부모와 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의 한국어 사용을 장려하되, 계승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 낮은 언어 유창성을 보이는 부적 일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통해 현 다문화가정 언어 지원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들의 상이한 언어 수준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도 언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되, 가족 구성원 간에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유창성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이 아닌 교육 대상자들의 수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교육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언어적 차원만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해석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을 활용하여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언어중개자, 의사소통의 문제, 역할의 뒤바뀜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사 부담 정도, 의사소통 수준, 청소년의 가정 내 역할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조사로 실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차이와 부모관계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차이가 부모관계 만족도를 좋거나 나쁘게 하는지, 아니면 부모관계 만족도가 좋

고 나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변인인 부모관계 만족도는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에 대한 관계만족도 1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관계만족도 1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내용타당도 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이는 2차 데이터 사용의 한계를 나타내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관계 만족도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언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는 부모와 자녀의 주류사회언어(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을 모두 살핀 연구가 부재했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외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로 이루어져 있어 한 가정 내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잘 반영한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언어 유창성과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살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나아가 한국어 및 계승어 유창성을 정적 일치 집단(부모=청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1(부모>청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2(청소년>부모), 부적 일치 집단(부모≠청소년)으로 나누어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내, 한국어와 계승어 유창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여 결국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이 곧 건강한 한국의 다문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우. (2012). 한국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9(2), 31-60.
- 김민정.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인류학,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 문화인류학, 41(1), 51-89.
- 김선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24(1), 21-46.
- 김연수, 광금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 및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아동 초기 언어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1), 191-207.
- 김영란. (2015). 다문화사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10, 37-54.
- 김이선, 정해숙, 이은아, 채수홍. (2010).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103-137.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 12079호, (2014).
- 문주희, 백지숙.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 박명숙, 송사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행경험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55-183.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이선미, 천우영.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2(1), 33-54.
- 안전행정부 (2014).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33-153.
- 최운선.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아 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7(2), 49-71.
- 황상심,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허청아. (2014). 동남아출신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나라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riagada, P. A. (2005). Family context and Spanish language use: A study of Latino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86(3), 599-619.

- Buriel, R., Love, J. A., & De Ment, T. L. (2006). The relation of language brokering to depression and parent-child bonding among Latino adolescents. In Bornstein, M. & Cote, L.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249-270).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ao, R. K. (2006). The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adolescents' language brokering for their immigrant parents. In Bornstein, M. & Cote, L.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271-296).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oi, J. (2010).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ocial Studies*, 101(4), 174-178.
- Chung, G. H., & Yoo, J. P. (2013). U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adjustment among interethnic and interracial famili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41-253.
- Collins, D. W., Maydew, E. L., & Weiss, I. S. (1997). Changes in the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s over the past forty yea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39-67.
- Collins, W. A., & Laursen, B. (2004). Changing relationships, changing youth interpersonal contexts of adolescent develop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1), 55-62.
- Dorner, L. M., Orellana, M. F., & Jiménez, R. (2008).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do to help the family": Language brokering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5), 515-542.
- Eichelsheim, V. I., Buist, K. L., Deković, M., Wissink, I. B., Frijns, T., Van Lier, P. A., . . . Meeus, W. H. (2010). Associations among the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different ethnic groups: A replication across two Dutch sampl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3), 293-300.
- Fillmore, L. W. (1991).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3), 323-346.
- Fillmore, L. W. (2000). Loss of family languages: Should educators be concerned? *Theory Into Practice*, 39(4), 203-210.
- Gorodzeisky, A., Sarid, O., Mirsky, J., & Slonim-Nevo, V. (2014). Immigrant families mothers' and fathers' proficiency in a host-country langu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ughters and s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5), 713-727.
- Hinton, L. (2001). Involuntary language loss among immigrants: Asian-American linguistic autobiographies. In Tan, A. & Alatis, J. (Eds.),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99* (pp. 203-252).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ua, J. M., & Costigan, C. L. (2012). The familial context of adolescent language brokering within immigrant Chinese families in Canad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7), 894-906.
- Kang, H., & Lazarevic, V. (2013). Exploring

-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Asian American immigrant families: An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3(2), 105-122.
- Kim, A. E. (2009).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32(1), 70-92.
- Lee, H., & Kim, K. (2000).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3), 283-295.
- Love, J. A., & Buriel, R. (2007). Language brokering, autonomy, parent-child bonding, biculturalism, and depression: A study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9(4), 472-491.
- Martinez, C. R., McClure, H., & Eddy, J. (2009). Language brokering context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among Latino parents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1), 71-98.
- Oh, J. S., & Fuligni, A. J. (2010). The role of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in the ethnic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Social Development*, 19(1), 202-220.
- Okita, T. (2002). *Invisible work: Bilingualism, language choice and childrearing in intermarried famil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Portes, A., & Rumbaut, R. G.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nson, K. E., & Urichuk, L. J. (2008). The effect of parent - child attachment relationships on child biopsychosocial outcomes: a review.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2), 129-152.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Schlabach, S. (2013). The importance of family, race, and gender for multiracial adolescent well-being. *Family Relations*, 62(1), 154-174.
- Tseng, V., & Fuligni, A. J. (2000). Parent adolescent language use and relationships among immigrant families with East Asian, Filipino, and Lati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465-476.
- Weisskirch, R. S. (2007). Feelings about language brokering and family relations among Mexic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545-561.

논문 투고일 : 2015. 08. 27

1 차 심사일 : 2015. 09. 08

게재 확정일 : 2015. 11. 06

National or Ethnic Language Fluenc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Jisu Park

Youjin Koh

Yoonsun Ha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grows, identifying factors that facilitate family adjustment seems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ren can be a crucial predictor in family adjustment. Thu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oncordance/discordance in language fluency affects youth's satisfaction towards their parents. This research employed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NSMF) using 9 to 24 year-old multicultural youth(N=4314) data and that of their parents. Since some youth were from the same family, we used Multilevel Models to take into account youth-level data (level-1) and family-level data (level-2).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cordance/discordance in both national and ethnic language fluency i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youth. Second, youth's satisfaction toward parents is highest when foreign parent and youth are fluent in Korean, as well as, when Korean parent and youth are fluent in ethnic languages. These findings can suggest direc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o encourage fluency in both Korean and ethnic languag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Korean immigrant youth, language proficiency, ethnic language us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